

목포항, 중국 전진항 기능 미미

대중 물동량 73만...서해안 주요 무역항 중 가장 적어

신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컨 항로 유치 시급

목포항이 신항개발과 도로·교량 등 교통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진항으로서의 기능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16일 발표한 '최근 목포항 물류처리 현황'에 따르면 목포항의 물동량은 중국과의 접근이 용이한 서해안대 주요 무역항 중 가장 적다.

목포항의 국가별 물동량은 미국이

162만t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73만t, 일본 55만t, 호주 43만t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목포항의 대중국 물동량은 인천 2719만t, 광양 1956만t, 평택·당진 1126만t, 대산 580만t, 군산 206만t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다.

또 목포항의 대중국 교역 규모는 5억3600만 달러로 수출 1억8500만 달러, 수입 3억5100만 달러를 기록했

며 수출은 자동차 등 수송기계, 수입은 철강제품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신항을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했던 사업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대중국 교역항으로서 활성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C&G그룹이 중국 석재산업의 본산지인 사면시로부터 석재를 수입해 신항을 국내 석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퇴출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항만 활성화를 통한 대중국 전진항으로 기능 강화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과 정기 컨테이너 항

로 유치 노력 등을 주문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체를 육성해 자체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관광객 저하항으로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계자는 "목포항은 교통여건 개선으로 항만 기능은 강화됐으나 수도권과 멀고 지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서해안대 항만 중 무역항으로 기능이 가장 낮다"며 "대불산단과 더불어 항후 개발되는 전남 서남권의 신규 산업단지의 지원항으로서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서해안 중국어선 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5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헬기를 동원, 집단 계류해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목포 대성지구 아파트 건설 22일 '첫삽'

2187억 들여 2015년까지 1391세대 건립

목포시 대성동 속칭 피난민촌에 들어서서 대성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조금도>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은 16일 "지난해 말 전남도 건축·교통위원회 공동심의 의결(조건부)을 거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오는 22일 착공식과 함께 안전 기원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대성동 127번지 일원 7만239㎡에 총사업비 2187억원(보상비 452억, 공사비 1735억)을 들여 1391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대지면적 6만1236㎡에 연면적 15만9238㎡로 건축률 14%,

용적률 216.85%가 적용되며, 층수는 16층~25층이다. 또 건설 호수는 10년 공공임대가 총 540세대(39㎡ 164세대, 51㎡ 376세대)고, 분양은 851세대(84㎡)로 모두 1391세대에 달한다.

정종득 시장은 "대성동 피난민촌은 정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으로 향후 신 주거지가 조성되면 정주·유통인구 5000명이 증가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2006년 목포시와 협약체결 당시와는 달리 손실 등을 이유로 내세워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도로 435m를 282m로 단축시키고, 아



파트 층수를 22층에서 25층으로 3개층을 늘리는 변경안을 지난 2011년 12월 목포시에 제출해 그동안 특혜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 전남도 건축교통위원회 공동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음에 따라 일단락됐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신안 천일염 판촉 활동군, 코엑스 '명절상품전'

신안군은 1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후원해 19일까지 열리는 '2013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에 참가해 신안천일염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2013 설맞이 명절선물상품전은 새로운 선물시장 발굴을 통한 상품개발 촉진, 명절선물산업의 정보교류와 유통활성화, 전통산업 발굴 및 우수 농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태평염전, 영농조합법인 신안솔트, 영진그린식품, 주원염전, 매실염전, 다사랑함초 등 6개 가공업체가 천일염 분야로 참가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난치병 투병 ‘서우’를 도와주세요”

진도청년회의소 오늘 ‘떡국 나눔 행사’ 등 봉사단체들 박서우군 돕기 팔 걷고 나서

“희망의 끈 놓지 않도록 서우를 도와주세요.”

신천성 대사효소결핍증인 난치병 페닐케톤뇨증으로 투병 중인 진도의 한 어린이 돕기에 진도군 봉사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매달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약값을 대는 것도 벅차기 때문이다.

생후 3개월째인 박서우군은 출생 직후 병원에서 ‘희귀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페닐케톤뇨증은 분유와 모유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페니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결핍된 상태에서 체내의 페니알라닌 성분이 유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뇌 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에 환자 수가 300명 안팎에 불과한 희귀병으로 몸에서 생산되지 않는 효소를 매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증증 뇌성마비의 증상을 보이며 움직이거나 말할 수조차

없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졌다. 밥은 먹지 않아도 약은 반드시 평생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고통스런 병이지만 박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넉넉지 않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진도군 봉사단체들이 난치병 환자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진도청년회의소가 주축이 돼 오는 17일 진도읍에서 ‘박서우군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떡국 나눔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창신 진도청년회의소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난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며 “많은 사람들이 박서우군을 돕기에 함께해 난치병 가족에게 희망을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전북

동부권 6개 시군·새누리 도당 첫 정책간담회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사업’ 점검

전북 동부권 6개 시군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지난 15일 오전 11시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 등 전북 동부권의 6개 시군 지역위원장, 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약추진을 위해 새누리당과 시군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지리산·덕유산

권 힐링 거점 조성사업'을 전북 동부권 공약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투자, 건강·휴양도시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는 남원에 '국립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 순창에 '만성질환 치유 빌리지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동부권의 힐링거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동부권 발전은 물론, 새만금사업과 더불어 전북의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휘목미술관 레지던시 기획전’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흥재) 서울관에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휘목미술관 레지던시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부안 휘목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원 레지던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김강한·김충호·양미량·진정권 등 입주 작가 4명이 작업했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북도립미술관 제공>

시·군별 미니 식품클러스터 조성

200억 투입 지역 맞는 식품 개발 지원

전북도내 14개 기초단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 식품클러스터가 집중육성된다.

전북도는 16일 "지역의 특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를 유도하고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올해 200억 여원을 들여 한 시·군에 한 개의 미니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미니클러스터는 차별화한 식품 개발과 마케팅, 연구개발 사업을 갖추며 체험 관광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특화된 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은 물론 연구개발, 체험관광 기능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 중학생 정구대회 20개팀 150여명 참가

강원도 대학중학교 등 전국 남녀중학교 정구 20개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4회 전국 남녀중학교 1·2학년별 정구대회'가 장류의 고장 순창에서 막이 올랐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순창공설운동장 내 정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학년별 남녀단체전과 개인전으로 예산리그를 거쳐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교과부-전북교육청 ‘학폭 기재’ 갈등 2라운드

지시 안따른 학교장 등 144명 징계 요구에 “수용불가” 고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문제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간의 전면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항을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의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재차 징계요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전북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14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 보냈다. 이는 지난

해 연말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벌인 특정감사의 결과로 여기에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등 징계대상자 144명이 포함됐다. 징계대상자에는 중북 인물이 대부분으로 1차 때와는 달리 13개 시·군 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됐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를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번에도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부 요청에 따른 특별징계는 물론 자체 징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의 결과를 보고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1차 특검 결과 처분을 미수용한 전북교육청의 재심 심정을 기각하고 같은해 11월 직 등을 들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단신

내고장 상품 애용 'Buy 군산' 28과제 추진

군산시가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인 'Buy 군산'을 위해 기업사랑 4대전략 28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후생' '기업사랑 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추진, 지역 기업과 군산 발전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는 지난 15일 열린 주택건설업자 간담회를 통해 지역 장비·인력·물품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추후 각종 건설현장에 지역 제품 애용을 권장하는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임산부 등 '영양플러스 사업' 참가자 모집

남원시보건소는 오는 21일부터 7일간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참가자를 신규 모집하기로 했다.

남원시보건소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건강증

진을 위한 영양교육과 개발상담을 실시하고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유나 쌀, 분유, 콩 등 보충식품을 매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빈혈검사 등 영양위험요인 검사를 실시 후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군, 원전주변 주민에 방사선 방호장비 지급

고창군은 16일 영광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방사선 방호장비를 지급했다. 방호장비는 영광원전의 비상사태에 대비, 방사능비상계획구역(EPZ)인 반경 10km 이내에 사는 공을·상하·해리면 주민 5100명에게 지급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주민 1명당 지급된 장비는 크린보호복, 보안경, 특수마스크, 덧신, 장갑 등 방사선 방호호흡장구다. 이와 함께 군은 대피시설 24곳과 구호소 6곳을 지정하고 방재장비 9종, 약품 15만 5천정을 지급했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순창군,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올해 68억 투입

순창군이 지역 축산업을 차별화·특성화·명품화하기 위해 올해 68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과 젓소 번식컨설팅, 모든 갭신, 산란계안좌지원 등 22개 사업에 7억원을, 액비과 처분을 미수용한 전북교육청의 재심 심정을 기각하고 같은해 11월 직 등을 들어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조사료 재배면적(700ha)을 1000ha로 확대하기 위해 조사료 수확제조비와 경영체 장비지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등 5개 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한다. 또 순창한우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순창 명품한우 육성 사업으로 한우정책, 수정란 이식 등 8개 사업에 2억원, 친환경 축산농가육성, 환경개선제, 스키르더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으로 4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